

CONTENTS

한반도
동향

2021년 8월

I. 주요 정세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III.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작성 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평화연구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해 교신에 응하지 않고 있음...

미국

Seoul Isn't Kabul *Foreign Policy*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지 20년 만에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중국

한미연합훈련, 왜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가 환구시보 논평

코로나19의 확산과 남북관계 완화 조짐 등으로 인해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이 8월 10일 시작...

일본

(후편) 제재 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세계경제평론IMPACT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삼중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미디어에서도 경제상황 악화를 직간접적으로 연일 보도...

러시아

러시아, 중국, 북한이 결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강박적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regnum.ru

역내 문제의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하고 교묘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음...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8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통신연락선의 재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I

주요 정세

8.3.(화)

국정원, “북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8.4.(수)

미국 국무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만남’ 대북제안 유효”(대변인 브리핑)

8.6.(금)

한미 외교장관 통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과의 협력방안 논의

외교부, “대북 관여 지속 노력”

미국 국무부, “인도주의적 계획 모색에 합의”

8.7.(토)

정의용 외교부 장관,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 기대”(ARF 화상회의)

안광일 북한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평화 의지 변함없다”(ARF 화상회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대북제재 완화해야 한다”(ARF 화상회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중국 핵무기 급속한 발전에 깊은 우려”(ARF 화상회의)

8.9.(월)

외교부, “(중국 반대에)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한미가 결정할 사안”

8.10.(화)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 돌입

본 훈련은 16일~26일 예정

북한, 남북연락채널 수신 거부

8.11.(수)

통일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아... 대화 재개 촉구”(유관부처 종합 입장)

미국 국무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해)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 순전히 방어적 성격”

8.15.(일)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통일에 많은 시간 걸려도 한반도 모델 만들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 교환 “피로 맺은 친선 강화 발전”

8.16.(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시작

8.17.(화)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중 북한의 태도와 반응을 보다 면밀히 주시”

8.23.(월)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인도협력 논의(서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인도협력 방안 논의”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 조건없는 대화 촉구”

8.25.(수)

미 국무부, “북미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북미 양자관계 개황(Face Sheet)’)
미국, 북한 지칭 단어를 ‘North Korea’ 대신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변경

8.30.(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듯”(연례 이사회 보고서)
정부, “한미 긴밀 공조 하에 북한 핵 미사일 활동 지속 감시”
중국, “쌍궤병진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 방안 찾길 바란다”
(대변인 브리핑)
미국,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조건없는 만남은 유효하다”(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논의(워싱턴 D.C.)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여러 아이디어 교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 WMD 관련 활동 주시”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조한범, 『Online Series』, CO 21-24, 통일연구원, 2021.8.18.)

-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해 교신에 응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임.
- 경제난 등 대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조치는 중·저강도 수준으로 예상됨.
 - 단기적 냉각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대화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화상)▶북·미실무회담▶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Id=1549709>

■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식량긴장’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서: 식량 가격은 정말 요동치고 있는가?

(정은이, 『Online Series』, CO 21-23, 통일연구원, 2021.8.6.)

- 김정은 총비서는 6월 15일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홍수피해로, 올해 식량 상황이 긴장되어 있다’며 ‘식량긴장’을 언급함.
 - 다수는 ‘쌀 가격 급등, 옥수수 가격폭등, 지역 간 가격 차이 확대’를 근거삼아 해당 발언을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위기징후라고 해석
- 북한에서 ‘긴장’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비와 독려를 위해 사용하는 일상용어임.
 - 북한의 검토보고(VNR)에 나타난 통계 왜곡 방지 노력, 2019~2020 곡물생산량, 인구의 자연증가, 도농 간 인구이동, 정부의 관료부패 척결 노력 등을 보면, ‘식량 긴장’을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위기징후로 해석하기 어려움.

- 북한 식량 물가통계를 분석하면, 쌀 가격이 출렁이지만 위기징후로 보기 어렵고, 옥수수 가격도 식량난보다는 활용도 증가와 밀가루와 상호대체제로서의 상관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논리적임. 또한, 지역에 따라 식량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지만 열흘 이내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역 간 물류이동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
- 북한의 핵심문제는 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특히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임.
 - 빈곤국의 경우 외부 지원에 의해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북한은 각국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 북한은 향후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기업, 종교단체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수용할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Id=1549651>

■ 북한군의 제1차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 분석

(이준혁, 『Issue Brief』, 27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8.3.)

- 노동신문(7/30)에 의하면, 건군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됨.
 - 보도에 의하면,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부합하는 군건설 방향과 방침들을 군정간부들에게 재침투·체득시키기 위하여 전군 군정간부들의 대회를 조직
- 개회사를 보면, 강습회는 현재 위기를 준엄한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개최되었으며, 전승세대, 새 세대 군 지휘관, 정치위원들을 집합시켜 사상정신을 창조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음.
 - 달라진 군부대 호명을 통해 지휘체계를 세운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강습회를 통해서도 하급 지휘관들의 부대지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최고사령관의 정치적 의도를 작전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함.
 - 7.27 정전일에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도 담겨있겠으나 전군 지휘관들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대한 북한의 안전관리전술일 수도 있음.
 - 북한이 최초의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3일 뒤에 보도한 것은 군 지휘관들이 부대에 복귀한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063&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 남북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 평가

(정성장, 『세종논평』, No. 2021-11, 세종연구소, 2021.8.2.)

- 7월 27일 청와대는 남북 양 정상에 친서를 교환해왔고 우선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도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보도함.
 - 남북 간 친서교환이 재개되고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은 관계 개선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임.
- 그러나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통신선 복원을 발표한 것에 비해 북한은 통신사 보도라는 형식을 취했음.
 - 남북통신선 복원에 대해 북한은 남한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8/1)를 통해 남북통신선은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남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통신선 복원이 남북 당국 대화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함.
 - 긴 호흡과 대전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화해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문 <https://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1&itm=&txt=&pg=1&seq=6051>

■ 최근 북한 산업의 동향과 전망

(이석기,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8.31.)

- 북한경제는 2017년 이후 강화된 UN 대북제재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봉쇄 및 그에 따른 무역 감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함.
 -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북한경제는 -4.5% 성장하였는데, 건설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적지 않게 후퇴함.
- 북한은 좁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공업화 전략 결과, 모든 산업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뒤처지게 됨. 이후 2016년 야심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했으나, 2017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됨.
 - 이중, 경공업은 소폭 성장했는데 경공업용 중간재의 대부분이 대북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북한정부는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패를 공식 인정함.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을 발표했는데,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산업 간 불균등 해소와 성장 기반 마련하는 조정 및 완충기 계획의 성격이 강함.

※ 원문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8.02.	조종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0년: 북중 경제 교류의 전개와 전망	최은주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rd/1/e_goread.php?bd=2&itm=&txt=&pg=1&seq=6050
08.02.	최근 북한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배경과 평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rd/1/e_goread.php?bd=2&itm=&txt=&pg=1&seq=6047
08.03.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064&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08.05.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이승현 외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828
08.18.	북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이유진	KDB미래전략연구소	https://rd.kdb.co.kr/index.jsp
08.31.	코로나19와 북중무역: 영향과 전망	정형곤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8호, pp. 40-49.

2. 미국

■ The Strange Bipartisan Push to Give North Korea a Peace Treaty (Anthony W. Holmes, *The Hill*, 2021.08.12.)

-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협상 초기 북한에게 평화적 해결을 제안하는 것
 - 흔히 “평화 우선 접근법”이라고 부르며, 한국전쟁의 상징적인 종전선언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 평화조약 또는 일부 호혜적 양보를 통한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함.
 - 이는 먼저 양보부터 한 후 협상을 시작하는 방법인데, 평화 우선 접근법은 북한이 호전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전 세계가 북한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며, 전쟁을 종식할 책임은 북한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있다는 것
- 평화 우선 접근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곧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없다는 사실에의 증빙이므로, 북한이 평화에 대한 제안에 호의적일 것이라 예측하며, 이로부터 협상의 선순환을 기대함.
- 그러나 이 접근법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실패할 것
 - 북한이 실제로 평화를 원했다면, 과거 평화에의 제의와 요구에 응했을 것
 - 일방적인 평화협정의 강요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심화시킬 뿐임.
- 현실은 평화협정을 더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이지, 북한이 아니라는 것
 - 이는 협상의 튼튼한 기반이 아님.

※ 원문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567612-the-strange-bipartisan-push-to-give-north-korea-a-peace-treaty>

■ Concern in Pyongyang over Protests in Havana? (Robert R. King, *CSIS*, 2021.08.03.)

- 7월 11일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함.
 - 이번 반정부 시위는 식량 및 의약품 부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면서 촉발됨.

- 북한 외무성은 7월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쿠바 반정부 시위는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살하려는 외부세력의 배후조정과 끈질긴 반 쿠바 봉쇄 책동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회주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기 위한 쿠바 정부와 인민의 모든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밝힘.
 - 이어 22일 발표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서는 “이번 쿠바 사태의 진범인, 배후조종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면서, “소요가 일어난 직후 미 고위층이 직접 나서서 반정부 시위를 극구 부추기고 선동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함.
- 쿠바와 북한의 경제관계는 제한적이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공통의 ‘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 쿠바와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은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줌.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017년에 쿠바 아바나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당시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으며, 이 만남에 대해 “형제만남”과 “역사적인 우정”이라고 언급함.
 - 이후 2018년 8월에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했으며,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북한을 방문한 바도 있음.
- 북한과 쿠바의 긴밀한 관계는 2014년 유엔총회에서 쿠바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I) 회부’ 내용을 뺀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쿠바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양국은 비슷한 권위주의 정권과 통제 경제(command economy)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 모두 국제경제 침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의료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또한 같음.
 - 하지만 양국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인구는 쿠바 인구의 2배 이상이지만 쿠바 경제는 더 견고하다는 것
 - 또한 쿠바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 경제의 2½ 배이며, 쿠바는 북한의 5배 이상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음.
- 북한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해 있음.
 -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75% 이상 급락함.
 - 북한의 의료 인프라는 쿠바보다 훨씬 덜 발달되어 있으며,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함.

- 북한은 쿠바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음.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언론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 쿠바인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접근이 일부 가능한 상황임.
 - 현재로서는 쿠바식 시위가 북한에 발발한다는 징후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북한 당국자들은 현재 쿠바의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

※ 원문 <https://www.csis.org/analysis/concern-pyongyang-over-protests-havana>

■ Engaging with North Korea: Lessons from Game Theory (Troy D. Smith, Marco Hafner, and Bruce W. Bennett, *RAND Corporation*, 2021.08.12.)

- 본 보고서는 2021년 초 북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임 이론(game theory)을 적용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히 비핵화 협상의 진행 방안에 대한 게임 이론 분석을 토대로 미 행정부에게 권고안을 제시함.
-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다음 두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김 위원장의 최종 목표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고 정권 교체를 막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 남아 있고 이웃 국가들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등)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현 상황에 만족할 것
 - 단, 이 경우 김 위원장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 둘째, 김 위원장의 최종 목표가 북한 주도의 남북통일, 즉 남북한 모두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단순한 생존과 북한에 대한 통치뿐만 아니라, 그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토를 넓혀나갈 것이며 북한이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할 것
 - 이 경우 김 위원장은 자신을 방어하고 한미 동맹 해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군이 남한 영토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권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비용이 덜 드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의 동기를 밝히도록 신속하게 노력해야 함.
-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미국과 국제사회는 잠재적인 합의를 시행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안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장기적으로 합의에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처벌을 규정해야 함.

- 강력한 다자 간 협력,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을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
-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어떤 전략이든 중국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도 정해야 함.

※ 원문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674-1.html

■ Seoul Isn't Kabul

(Clint Work, *Foreign Policy*, 2021.08.18.)

-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지 20년 만에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둔군 유지에 대한 노골적인 회의론 표출과 추가적인 방위분담금 요구 등으로 주한미군 역시 철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던 ‘미국 우선주의 정치’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이는 주한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설득력 있는 논지를 가능하게 하나, 결론적으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만 8,500여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음.
- 현재 가능성은 낮으나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현재의 주요 세력의 근거지를 파악하고, 그 근거지가 적합한지”에 초점이 맞추고 있음.
- 장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 미군이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므로,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우발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 철수는 아프간에서의 철수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울 것이며, 이는 미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신호가 될 것임.
- 주한미군 주둔은 재편 및 감축을 통해 변화해왔지만, 1950년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근간임.
- 주한미군이 재편 또는 감축될 때마다 닉슨 독트린, 냉전 종식, 테러와의 전쟁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으며, 따라서 미군 철수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의미함.

- 단기적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는 한반도에 대한 역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오해와 공격 가능성, 한국의 보복 또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일본의 불안과 재무장, 동북아 역내 전체의 군비경쟁 및 확산 등 다양하게 상호 연계된 결과를 부를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의 신뢰도를 약화할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군 주둔도 위와 같은 결과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휴전은 적대행위의 중단이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고, 군사적 해결책은 서약되었으나 군사화된 틀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미국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는 통일된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길을 찾는 것이었으나, 단기적인 목표가 우선시 되어 미군을 주둔하게 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게 함.
-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결속을 훼손했고 억지력과 미군 주둔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과 최대주의 노선을 유지함.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믿을만한 파트너도 아니었고, 북한에게 협상 파트너도 아니었음.
- 미 행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미군 철수를 고려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고려할 것이고, 그를 위해 감내해야 할 일정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을 것
 -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과 꾸준한 동맹으로서의 응집력만이 필요할 것

※ 원문 <https://foreignpolicy.com/2021/08/18/south-korea-usa-troops-withdraw-kim-jong-un-moon-seoul-kabul/>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8.02.	Why Another ROK – North Korea Summit Won't Change Anything	Robert Kelly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hy-another-rok-north-korea-summit-won%E2%80%99t-change-anything-191024
08.03.	South Korea Says North Wants Sanctions Lifted before Restarting Nuclear Talks	Mychael Schnell	<i>The Hill</i>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566065-south-korea-says-north-wants-sanctions-lifted-before-restarting-nuclear
08.06.	North Korea Is Starving, Kim Jong-un Admits	Trevor Filseth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starving-kim-jong-un-admits-191354
08.10.	North Korea Rips South's Drills with US	Cameron Jenkins	<i>The Hill</i>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asia-pacific/567100-north-korea-rips-souths-drills-with-us
08.16.	U.S. Should Prove It Has No Hostile Intent Toward Pyongyang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us-should-prove-it-has-no-hostile-intent-toward-pyongyang-191892
08.16.	South Korea Offers to Work With North Korea on Coronavirus Relief	Stephen Silv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outh-korea-offers-work-north-korea-coronavirus%C2%A0Orelief-191882
08.16.	Beyond the Billet-Doux: Thoughts on How to Read the Trump-Kim Letters	Robert Carlin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1/08/beyond-the-billet-doux-thoughts-on-how-to-read-the-trump-kim-letters/
08.23.	Biden Envoy Calls on North Korea to restart Nuclear Talks	Mychael Schnell	<i>The Hill</i>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569107-biden-envoy-calls-on-north-korea-to-restart-nuclear-talks
08.25.	Debating North Korea: US and Chinese Perspectives	Susan A. Thornton, Li Nan and Juliet Lee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1/08/debating-north-korea-us-and-chinese-perspectives/
08.26.	The Afghanistan Collapse: How Does North Korea See It?	Doug Bandow	<i>1945</i>	https://www.19fortyfive.com/2021/08/the-afghanistan-collapse-how-does-north-korea-see-it/
08.31.	North Korea Took the Backburner, and Nothing Happened	Bonnie Kristian	Real Clear World	https://www.realclearworld.com/articles/2021/08/30/north_korea_took_the_backburner_and_nothing_happened_792267.html
08.31.	Was Kim Jong Un Vaccinated Earlier This Year?	Stephen Silv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as-kim-jong-un-vaccinated-earlier-year%C2%A0-192795

3. 중국

■ 중국 주변국의 안보정세와 중소국가의 딜레마: 잠시 평온해진 한반도 정세

(쥘지용, World Affairs, 2021, No.15.)

(郑继永, 中国周边安全态势与中小国家“选择困境”: 朝鲜半岛局势暂处平缓状态, 世界知识, 2021, No.15.)

- 한반도 정책은 미국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음.
 -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을 대거 기용하여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진용을 갖추었으나 아직까지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완전하고 명확한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
 -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의 ‘전략적 인내 정책 3.0’ 정도로 볼 수 있음.
 - 바이든 정부는 겉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처리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외교’, ‘억제’의 세 가지 키워드로 축약됨.
 -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전면에 내세워 한반도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 동맹 복원에 주력하고 한반도 정세를 일단 완화하였음.
 -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정부 때와 같은 최고 수준의 대북 접촉은 꺼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뒤에야 실무적인 협상에 나설 것
 - 미국이 북한에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를 표현했다가 북한의 선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
- 한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대미 안보 의존도로 인해 균형외교 실현도 쉽지 않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어 있음.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북 수동적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내세울 ‘평화유산’을 만들 수 있음.
- 북한은 경제난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외교적으로 김정은이 대화와 대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미관계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향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핵심변수는 미중관계의 변화
 - 미중관계가 당분간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은 각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적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음.
 - 중국은 한반도의 최대 이해관계자이자 전통적 참여자로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 하는데 그 영향력이 계속 확대될 것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SJZS202115012&uniplatform=NZKPT&v=MujSS6zFMZzUMluoXSz1kTgr%25mmd2Fc6lGeQ4PAdb8FlalBzXQy4Osd6%25mmd2FpqrQfuY2AXrw>

■ 한미연합훈련, 왜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가

(양시위, 환구시보 논평, 2021.8.11.)

(杨希雨, 美韩联合军演, 为何中国明确反对, 环球时报, 2021.8.11.)

- 코로나19의 확산과 남북관계 완화 조짐 등으로 인해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이 8월 10일 시작
- 여러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된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결정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이 미국의 필수불가결한 대북 압박수단임을 설명하는 것
 - 미국의 의도는 미국 내 집권정당이나 한반도 정세,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 이렇게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남북 긴장감과 불안감만을 고조시키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결과 초래
 - 이 가운데서 미국만 동북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역내 국가들 모두가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
- 특히 한국은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한정하고자 하나,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끌어들고자 함.
 - 한국이 불평등한 동맹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여 있고, 안보적 불안감을 느낄수록 대미 안보의존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국이 동맹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일연합훈련은 본질적으로 구별됨.
 - 미일훈련은 일본의 주권과 전수방위(專守防衛)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한미훈련은 한국의 주권 내에서 실시하고, 미일훈련은 통상 제3자를 분명히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한미훈련은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북한만을 목표로 함.

- 중국은 남북 당사자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만을 초래하는 한미연합 훈련과 같은 전쟁연습을 반대할 수밖에 없음.
 - 남북 쌍방의 안보 딜레마는 상호 신뢰 강화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
 - 미국이 고집스럽게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것이 한미동맹 확대 또는 지역안보의 버팀목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한미 간의 상호작용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4lzzBsajca>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8.13.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세 가지 오판 〈拜登政府对网络安全的三大误判〉	루촨잉 (鲁传颖)	환구시보 (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4KWRS5lthA
2021. No.8.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긴 4대 함정 〈美国留下阿富汗“四大”陷阱〉	장자동 (张家栋)	당대세계 (当代世界)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JSD202108014&uniplatform=NZKPT&v=R5r4pkxln18J9ATf4TT5HMMEjt4%25mmd2BOhAjGZXNz0j9o51%25mmd2FEQdZc0WEfbYfuQc5sRNc
2021. No.8.	중국공산당이 민심을 얻은 비결은 무엇인가 〈中国共产党深得民心的秘诀是什么?〉	커샤오 (柯绍)	당대세계 (当代世界)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JSD202108017&uniplatform=NZKPT&v=R5r4pkxln1%25mmd2Fov52zi8Y7mN0JnBSTWlsjXAP30fQOcYgtkogkarTjiUCvMW%25mmd2B425H%25mmd2B
2021. No.4.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 경쟁적 공존과 새로운 균형 〈拜登政府的对华战略: 竞争性共存与新平衡〉	왕판 (王帆)	평화와 발전 (和平与发展)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HPFZ202104001&uniplatform=NZKPT&v=zQRXC6JvGUV2glLS0BVx0FuWNIvQupOj49R8VpUq8FvSnjPscE8QMCp6pwZUO7d6

4. 일본

■ 조선노동당규약 개정에 대하여

(히라이 히사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21.8.5.)

(平井久志, 「朝鮮労働党規約の改正について」,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21.8.5.)

-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의 서문을 보면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김정은’의 이름 대신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됨.
 -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권위 없이도 정권운영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자, 김정은 정권의 ‘독립’, 즉 ‘김정은 시대의 당규약’을 의미
 - 그러나 선대의 권위나 업적은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차용될 것
- 당의 목표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
 - 변경된 문구의 ‘자주적’이라는 용어는 표현을 부드럽게 변경한 것일 뿐 기존의 민족해방노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북한의 노선을 고정적으로 보는 시선
 - ‘민족해방’을 삭제한 것은 적어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며, 제4조 당원의 의무에서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
 -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 역시 선대의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차별화되는 표현으로 ‘통일조선(한국)’에 대한 의향이 후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당 규약 개정이 북한이 ‘2개의 조선(한국)’을 받아들이고, 무력행사로부터의 노선변경으로 볼 수 있을지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함.
- 이번 당규약 개정에서는 김정은에 의한 당의 ‘사당화(私黨化)’가 나타남.
 - 김정은 정권에 들어 ‘당중앙’은 김정은 본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당규약에서 기존에 ‘당’이나 ‘김정은동지’라고 표현되었던 문구가 ‘당중앙’으로 변경되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라는 표현도 등장
 - 매우 낮은 가능성이지만, 최고지도자가 바뀔 때를 대비해 이름을 삭제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을 삭제해도 될 정도로 김정은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내용적으로는 김정은의 개인독재가 강화되었지만, 용어적으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의 당규약 스타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제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제1비서는 공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 김정은 총비서가 추구해온 ‘유일적령도체계 강화’에 반하는 내용
 - 김정일이 사망 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까지 ‘제1비서’라는 직책을 보유
 - 즉, ‘제1비서’는 후계자 자리와도 같으므로,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위만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일 수 있음.
 - 조용원을 임명하는 것은 백두혈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으며, 김여정은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도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제1비서라는 직위는 맞지 않음.

※ 원문 <https://www.jiia.or.jp/column/korean-peninsula-fy2021-01.html>

■ (후편) 제재 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카미사와 히로유키, 세계경제평론IMPACT, 2021.8.30.)

(上澤宏之, 「続・制裁下における北朝鮮の経済発展戦略」, 世界経済評論IMPACT, 2021.8.30.)

-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삼중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미디어에서도 경제상황 악화를 직간접적으로 연일 보도
 - 북한 미디어를 통해 현재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지방경제·공업의 자립적 발전 즉, 지방활성화를 추진
 - 8차당대회에서 지방경제에 대해 강조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정책적 요구로 제시
 - 열매를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 광산 폐기물을 활용한 보도블럭 제조 등의 사례를 보도
 - 재정난으로 인하여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 특수성을 활용한 자립·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과학기술을 ‘경제계획완수의 지름길’, ‘난관극복의 열쇠’라고 부르며 과학기술을 적극 진흥
 -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와 연계지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 증진을 위한 인재육성, 기술자들의 재교육화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마지막으로 간부들의 정예화를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간부들의 자질과 책임, 충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강조·확인하며, 간부에 대한 비판 및 강등도 빈번히 일어남.

- 간부의 만성적인 무책임성과 무능함을 정책 집행의 장애물로 여기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을 타파하는 것을 강조
- 경제건설에서 '객관적 조건'보다는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대중(인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혁명정신을 발휘할 것을 강조
-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도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강조하고, 사상동원을 중심으로 한 총력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체제의 특성을 잘 반영함.
- 김정은 위원장이 제10차 청년동맹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15년간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강조한 것을 통해 삼중고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이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원문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269.html>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8.1.	RCEP를 통한 한중일 무역자유화: 현재지점과 과제 〈RCEPを通じた日中韓の貿易自由化: 到達点と課題〉	쿠노 아라타 (久野新)	ERINA Plus No. 161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1/08/er161_tssc.pdf
8.16.	한중일 경제협력과 '투먼(Tumen)이니셔티브' 〈日中韓經濟協力と 「大図們イニシアチブ」〉	한규화 (韓葵花)	세계경제평론 IMPACT (世界經濟評論 IMPACT)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255.html
8.20.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バイデン政権の北朝鮮政策は どうなったのか〉	키우치 타카히데 (木内登英)	Nomura Research Institute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21/fis/kiuchi/0820

5. 러시아

■ 한국과 북한이 다시 연락하는가?(Сеул и Пхеньян снова на связи?)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The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2021.08.05.)

- 7월 27일 한국과 북한은 일 년 전 차단했던 양자 간 통신선의 복구를 결정함.
 - 당시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지 않는 데에 반발해 양자 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한국이 북한의 개성에 건설한 연락사무소도 폭파했었음.
-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 배경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함.
 - 우선,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증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남측의 지원이 필요해짐.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너무 심한 의존을 원치 않음.
 - 끝으로 이는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활성화 시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로도 풀이됨.
- 이번 통신선 복구가 향후 남북관계의 성격과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복원된 통신선을 활용하는 데에 더해, 북측에 코로나 감염증 상황에서 온라인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 체계도 구축하자고 제안함.
 - 보안 회선을 통한 온라인 회담은 이미 코로나 시대 외교의 대세가 됐으며, 남 북한이 현대적인 '줌(Zoom)-외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도 남북관계의 매우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원문 <https://interaffairs.ru/news/show/31039>

■ 러시아, 중국, 북한이 결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강박적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На фоне сближения России, Китая и КНДР Вашингтон навязчиво следит за Сеулом)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regnum.ru, 2021.08.21.)

- 역내 문제의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하고 교묘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음.
 -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한 미국은 핵-미사일 포기라는 일방적인 양보를 기대하면서 제재 해제 및 안전보장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임.
 - 이와 함께 미국은 위성국인 한국을 활용해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킬 군사훈련도 개시함.
 -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동맹국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어 미국의 제안에 응하는 태도를 보임.

- 훈련을 결정하는 과정을 볼 때,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야외훈련을 제외한 ‘완화된’ 형식으로 진행됨에도 도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월 말 남북한 통신선의 복구를 환영하는 동시에 대상이 불분명한 ‘방어적’ 성격의 기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한국과 유일하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 이러한 기동훈련은 적대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 이번 훈련이 처음부터 남북한 간 합의를 겨냥한 것이란 점이 분명하며, 한국이 훈련을 거절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은 복구했던 통신선을 다시 차단함.
-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핵전쟁 예행연습’이라 부르며 보복을 약속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과 달리 예상됐던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도발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북한이 타협과 정치적 양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발 대신 러시아 및 중국과 미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관한 일련의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임.
 - 한 주 동안 세 차례의 양자 고위급 회담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한은 공조 강화를 약속하고 미국과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해제를 주문함.
- 북·중·러의 전방위적 결속 심화라는 경고를 받은 미국과 한국의 반응은 모호하게 차이를 보임.
 - 메시지를 받은 이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일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데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자국 내 기독교 유적 파괴를 비난함.
 - 한미관계에 썩기가 박혔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경솔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썩기’가 실재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 됨.
 -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결속은 한국보다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 원문 <https://regnum.ru/news/polit/3350067.html>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8.02.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발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ужны новые подходы)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Андрей кортунов)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bezopasnost-i-razvitiye-severo-vostochnoy-azii-nuzhny-novye-podkhody/?sphrase_id=84143679
08.03.	한국과 북한이 평화의 수화기를 집다: 남한과 북한이 접촉을 재개해 (Сеул и Пхеньян взяли за трубки мира: Южная Коре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ли контакты)	세르게이 스트로칸 (Сергей Строкань)	kommersant.ru	https://www.kommersant.ru/doc/4928275?query=코리아
08.03.	한국에서 김정은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혀 (В Сеуле заявляют о готовности Ким Чен Ына разоружиться)	다닐라 모이세예프 (Данила Моисеев)	ng.ru	https://www.ng.ru/world/2021-08-03/6_8215_hunger.html
08.09.	김정은의 누이가 한국 정부 내부에 분열을 불러와 (Сестра Ким Чен Ына внесла раскол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올레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иянов)	rg.ru	https://rg.ru/2021/08/09/sestra-kim-chen-yna-vnesla-raskol-v-pravitelstvo-iuzhnoj-korei.html
08.09.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어떻게 세계를 속이고 있는가? (Как Вашингтон обманывает мир в корейском вопросе?)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Владимир Павленко)	regnum.ru	https://regnum.ru/news/polit/3340639.html
08.11.	북한이 상투적인 꾀를 부리다: 북한이 미국과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의 연락을 단절해 (КНДР сманивировала стандартно: Пхеньян разорвал связь с Сеулом в ответ на совместные с США военные маневры)	세르게이 스트로칸 (Сергей Строкань)	kommersant.ru	https://www.kommersant.ru/doc/4938097?query=코리아
08.13.	북중러 연합 형성의 중요한 단계가 이뤄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коалиции Москвы, Пекина и Пхеньяна сделан новый важный шаг)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Владимир Павленко)	regnum.ru	https://regnum.ru/news/polit/3343654.html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8.17.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가 없는 나라라는 주장은 사실인가.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가 (Правда ли,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на планете без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в чем тут секрет)	보리스 안드레예프 (Борис Андреев)	kp.ru	https://www.kp.ru/daily/28317/4460419/
08.20.	러시아-한국: 결산과 전망(외교관계 수립 30년)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тоги и перспективы (30 лет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올레그 카르포비치 (Олег Карпович), 류보프 스마기나 (Любовь Смагина)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2021;12(2):111- 120.	https://cyberleninka.ru/article/n/rossiya-respublika-koreya-itogi-i-perspektivy-30-let-ustanovleniya-diplomatic-heskih-otnosheniy/viewer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8.1.~8.31.)

일자	대내	대남·대외
08.01. (일)	- 김덕훈(내각총리) 현지 요해(평안남도) △남양제염소, 소금생산의 집약화·기계화·현대화로 생산 증대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갱건설과 석탄생산에 필요한 전력 안정적 보장에 대하여 대책 강구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강조	[대남]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는다면 큰 용단을 내리겠다는 것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
08.04. (수)	김정은 총비서 현지지도(‘18.7.15) 사적비 「길이 빛나라 중평땅에 어린 인민사랑의 자욱이여」, 중평 남새온실농장에 건립	[대러]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담화 - 북·러 친선관계를 전략적 견지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
08.05. (목)	- 김정은 총비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함경남도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긴급소집 - 리정남 책임비서 및 도당군사위원회 위원 등 참석 - 폭우피해(8/1~3) 발생 보도 - 폭우방지 대책 세울 것 강조	[대일] 일본 신형 스텔스전투기 도입 결정에 대해 “인류의 소망에 역행하는 평화파괴책동”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08.08. (일)	- 김덕훈(내각총리) 현지 요해(평안남도)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북창군과 덕천시의 여러 협동농장, 보산제철소	
08.10. (화)		[대남]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침략전쟁연습을 한사코 강행한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08.11. (수)	- 김덕훈(내각총리) 현지 요해(함경남도 큰물피해 복구사업)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보장에 선차적 관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폭우 사전대비 병행 등 독려	[대남]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제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함.”
08.13. (금)	-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76주년 관련 - 노동계급·직맹원들 경축모임, 리두성(당 중앙위 부장), 홍철진(평양당위원회 비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참가 - 녀맹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녀성회관)	

일자	대내	대남·대외
08.15. (일)	-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76주년 관련 - 김정은 총비서, 해방탑에 화환 진정(당 중앙위 비서 리일환 전달) - 경축행사 진행(동평양대극장 만수대예술단 종합 공연, 모란봉극장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평양교예 극장 종합교예공연 등) 「김일성 전집」 증보판 14권 출판 - 김일성 연설·담화·결론 등 96건 노작 수록	[김정은 축전] 및 답전 - 러시아 대통령(푸틴), 광복절 관련 친선협조 관계 강화
08.19. (목)	- 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화상회의)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	[대일] 일본의 군사훈련 계획 관련 비난 “방위의 간판 밑에 항공모함급의 호위함선으로 임의의 시각에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책동의 일환”(조선중앙통신)
08.20. (금)	전력·건설·정보 부문 과학기술발표회(화상회의)	
08.21. (토)	[김정은 현지지도]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 건설 현장 - 수도와 지방도시들의 현대화, 문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시건설계획의 중요성을 강조	
08.24. (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 진행 - 최룡해 상임위원장 집행, 박용일 부위원장·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 위원 참석 14기 5차 최고인민회의(9.28., 평양) 소집 결정 「도로교통법」·「산림법」 개정	
08.25. (수)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21」 진행 (화상회의)	
08.26. (목)	전국 화장품부문 과학기술발표·토론회 진행 (~8/27, 화상회의)	
08.27. (금)	‘청년절(‘91.8.28.) 30주년’ 경축행사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08.29. (일)	- 김정은 총비서, ‘청년절(8.28.)’ 계기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축하문 전달 - 축하문 전달모임 진행 및 리일환 당 비서·리두성 당 부장 등 참가	
08.30. (월)	[김정은 공개활동] 청년절 행사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탄원 진출 청년들 격려	
08.31. (화)		김정은 총비서에게 광복절(조국 해방의 날) 76주년 관련 여러 나라에서 축전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우리 나라 적십자회 2021년-2030년 전략수행을 위한 활동 (조선중앙통신, 2021.8.6.)

- 8월 6일 조선중앙통신은 적십자회의 2021~2030년 전략 수행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실음.
 - 리은혜 적십자회 부장은 적십자회의 전반적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보건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자체로 발전하는 것이 총체적 목표라고 발언
 -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300개의 주민지역에서 재해위험 감소, 물위생, 보건 및 구급처치 등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이행하고, 지부강화와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간다고 발표
 - 또한 본부와 각급 지부들의 질적 강화, 적십자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학 기술적으로 담보, 모든 활동의 숫자화, 정보화 실현 등을 전략수행 방도로 내세웠으며, 재해성 자연현상과 발생원인, 재해 발생 시 행동질서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사업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재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사업,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로 빛내어나가자 (노동신문, 2021.8.15.)

- 8월 15일 노동신문 1면은 해방 76주년을 맞아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사설을 게재함.
 - 사설은 8월 15일은 민족수난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운명개척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 의의 깊은 날로 김일성 수령은 빼앗긴 나라를 찾아준 민족재생의 은인이자 절세의 애국자고,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 해 준 것이 최대의 공적이라 칭송
 -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강조하며,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은 총비서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혁명적 진군에 총매진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당 제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총진군에 박차를 가해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의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8.26.)

- 8월 26일 노동신문 1면은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의 내용을 보도함.
 -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도로교통법·산림법의 수정보충에 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
 -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는 결정이 채택
 -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통일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가결

■ 축하문 -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8.29.)

- 8월 29일 노동신문 1면은 8월 28일 청년절을 맞아 청년들의 탄원(어려운 곳에 자원) 진출을 치하하는 내용을 담은 김정은 총비서의 축하문을 게재함.
 -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전체 인민들의 투지를 더욱 북돋아 주었음을 치하하고, 청년들의 애국심을 이끌어낸 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
 - 세계 곳곳에서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와 도시로 이동할 때, 수도에서 탄전, 건설현장, 섬마을 등으로 주저없이 진출한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은 과거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치하
 -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 압박과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 청년대오를 변질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최근 청년들의 정치의식과 정신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청년대오를 건설한 애국가 집단으로 강하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독려

■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노동신문, 2021.8.30.)

- 8월 30일 노동신문 1면은 모든 청년들이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간직할 것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가 청년들에게 보낸 축하문에는 청년들의 혁명적 열의와 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조국의 기상을 힘차게 떨치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설
 -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약 1만여 명의 청년들이 험지에 탄원 진출한 것은 청년들의 높은 충성심과 애국심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압박과 사상문화적 침투도 청년대군의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
 - 모든 청년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집단주의가 조국의 영원한 전통이 되게끔 해야 하며,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독려

〈대남·대외〉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8.1.)

- 8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통신연락선의 재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 담화는 통신연락선 복원은 물리적 재연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라며, “서부른 억측과 근거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수 있다”고 발언
 -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남북이 바라지 않았던 곡절과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같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강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함.
 - 훈련은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고, 한국이 전쟁연습을 할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희망인지 절망인지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강조

■ 렬도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속심은 무엇인가 (조선중앙통신, 2021.8.5.)

- 8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자위대 강화에 대해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함.
 - 논평은 항공 자위대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이시가와현과 미야자키현 기지에 F-35A, F-35B를 배치하고 2024년부터 정식 운용하겠다는 결정은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는 인류의 소망에 역행하는 평화파괴 책동이라고 비판
 - 영토 군사화를 완성하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도발행위로 지역정세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치는 일본의 야망을 명백히 알 수 있게 한다고 주장
 -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기도와 조선반도재침야망이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 되고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국제사회가 엄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파멸적 후과에 대해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노동신문, 2021.8.11.)

- 8월 11일 노동신문은 2면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김여정 부부장의 10일 담화를 게재함.
 -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환영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표현

- 합동군사훈련은 침략적 성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이 격발되고 있고, 미국의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는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억제력만이 평 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힘의 비축이 사활적인 요구라고 주장
-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을 언급하며,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위임에 따라 글을 발표한다고 밝힘.

■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8.11.)

- 8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김영철 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 김영철 부장은 한국이 “전쟁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고, 이는 8월 1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희망과 절망의 길에서 전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한국에게 주었지만 대결을 선택했다며, “우리도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
 - 그리고 천명한 대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며, “기회를 제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수 없다는것은 분명”하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없이 진행해나 갈 것”이라고 밝힘.

■ 쿠바인민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노동신문, 2021.8.13.)

- 8월 13일 노동신문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탄생 95주년과 관련하여 업적을 기리는 개인필명의 논설을 게재함.
 -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을 승리로 이끈 탁월한 지도자이며, 사회주의 첫 승리를 이룬 인물로 그가 이룬 사회주의 위업이 오늘도 곳곳이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
 - 1986년 김일성과 피델 카스트로의 상봉은 북한과 쿠바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8년 김정은 총비서와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회담으로 친선관계를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
 - 쿠바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부강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결된 힘과 “사회주의냐 죽음이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

※ 일러두기 ※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